

지방흡입술 후에 발생한 횡문근융해증 1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미 · 이영기 · 김진경 · 김은정 · 김수진 · 박태진 · 윤종우 · 구자룡 · 김형직 · 노정우

A Case of Liposuction with Rhabdomyolysis

Me Kim, Young Ki Lee, Jin Kyung Kim, Eun Jung Kim, Soo Jin Kim
Tae jin Park, Jong Woo Yoon, Ja Ryong Koo, Hyung Jik Kim, Jung Woo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서 론 : 지방흡입술은 피부 절개를 통해 캐놀라를 피부 밑에 삽입하고 음압을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최근 성형과 체중감소를 위한 미용 성형을 위해 시술되고 있다. 지방흡입술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은 이전에 국외 문헌에 보고되었으나 국내에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었다.

증 례 : 40 세 여자가 하루 전 개인의원에서 양쪽 종아리에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후에 양쪽 종아리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고 혈액검사서 CK 수치가 높다고 하여 전원되었다. 입원 당시 양쪽 종아리에 부종과 압통이 있었다. 오른쪽 다리의 제5 요추 신경근 지배 고유영역의 감각이 60% 밖에 느껴지지 못하였고 ankle dorsiflexion이 악화되어 있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서 AST/ALT 133/39 IU/L, BUN/Cr 4.2/0.7 mg/dL, 혈중 CK 9900 IU/L, myoglobin 3040 ng/mL, LDH 533 IU/L, 총단백질 4.2 g/dL, 알부민 2.6 g/dL, Na 141 mEq/L, K 4.6 mEq/L, Cl 105 mEq/L이었다. Tc^{99m}-MDP 골주사 검사결과 양쪽 하지의 근육 연부조직에 섭취가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신부전의 합병증 없이 충분한 수액 치료로 혈중 CK와 myoglobin은 감소하였으나, 양쪽 종아리의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었고 신경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다리에 incomplete peroneal nerve palsy가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와 함께 스테로이드 (1 mg/kg)를 투여하면서 오른쪽 다리의 감각 저하와 ankle dorsiflexion 저하는 호전되었고, 퇴원 후 스테로이드 (1 mg/kg)를 투여하면서 오른쪽 다리의 감각 저하와 ankle dorsiflexion 저하는 호전되었고, 스테로이드 감량하면서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결 론 : 지방흡입술 후에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에 세심하게 근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겠다.